

감염예방 위해 거리두기 · 방역지침 준수

글 김영곤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서울아산병원 홍보팀



아산재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 공모사업의 면접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사진은 이봉주 사회복지자문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 심사위원들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도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해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재단의 사회복지와 의료복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올해에는 방역 지침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게 시행됐다. 올해 사회복지 공모사업은 소외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과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27개 사회복지 협력기관이 선정됐는데 해당 기관은 1~2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면접심사’, 현장방문 조사,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포함한 5단계 심사를 거쳤다.

소외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각지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업 모형을 통해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2019년 사업을 진행한 8개 연속기관과 신규사업을 제안한 9개 기관을 포함해 17개 기관을 선정했다. 협력기관은 탈북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 청소년, 시설퇴소 청소년, 고려인 아동 등 다양한 소외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기관 또는 실무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현장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0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실무자 모금액량 강

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온라인 면접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올해는 특히 온라인 화상면접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가 진행됐다. 새롭게 도입된 화상면접은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 등 전반적인 심사과정에서 협력기관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화상면접은 3일 동안 진행됐으며, 분야별로 3~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 장소에 모여 화면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를 만났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김도빈 선임사회복지사는 “경남 김해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 여러 교통수단을 번갈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좌석이 한 방향으로 배치된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왼쪽부터).



아 이용해야 하고, 코로나19로 불안감도 많았다. 올해 도입된 화상면접을 통해 이런 불편을 크게 줄였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최은주 팀장은 “사전 테스트 덕분에 인지 어려움 없이 화상면접에 임했다. 심사위원의 의견도 모니터를 통해 바로 전달 받아 오프라인 면접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화상면접 이후 진행된 현장방문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심사위원은 방문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포함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선발된 27개 협력기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 유지

아산재단 산하병원으로 국내 최대 병원이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찾는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상황실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송파구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선별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위험지역 경유력이 없어도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를 통해 외래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진료 환경도 대폭 보강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자 서관 응급실 옆에 컨테이너를 1대 더 설치했다. 환자 대기공간에도 이동식 음압기 3대를 설치하고, 대기의자 간격을 넓혀 안전성을 높였다. 24시간 검사체계도 구축했다. 인력과 시

약, 장비를 총동원해 환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검사를 소화했다. 수술을 앞둔 환자, 원인미상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자 서울아산병원 위기대응 상황실은 강화된 ‘직원 생활수칙’을 공지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집단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회식 및 사적모임 금지 ▲종교·체육시설 자제 및 이용수칙 강화 ▲병원 내 택배 수령 자제 등이다. 원내교육 및 집단모임 기본 준수사항은 ▲간격 2m(최소 1m) 준수 ▲개인위생, 기침예절 준수, 알코올 젤 이용 손위생 수시 시행, 마스크 상시 착용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원칙적으로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이다. 이밖에도 ▲직원, 동거인의 역학적 연관성 발생시 누락 없이 보고 ▲전직원 1일 2회 증상 모니터링(문진표 시행) ▲2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악화 시 적극적인 검사 시행 등의 사항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방심이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길 바란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직원과 환자, 보호자 그 누구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하며 손위생도 꼭 지켜야 한다. 모두 힘을 합쳐 이 사태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어졌어도 서로를 위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아산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의 노력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